

광주·전남 특허출원 전국 최하위

국세청 고위직 광주·전남 출신 없어

지난해 2093건·1942건, 13·14위 기록 64% 수도권 편중... 지식재산 지역 격차

광주·전남지역의 특허 출원 건수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는 3년 연속 특허 출원이 감소하면서 수도권과의 지식재산 격차가 더 벌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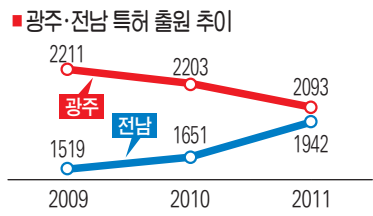
1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지역별 특허 출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 출원 건수는 총 13만8034건이었다. 이 중 광주는 2093건, 전남은 1942건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각각 13, 14위를 기록했다.

광주지역의 특허 출원은 2009년 2211건, 2010년 2203건, 지난해 2093건으로 3년 연속 하락하며 전체의 1.5%에 그쳤다.

전남은 2009년 1519건, 2010년 1651건, 2011년 1942건으로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의 1.4% 수준으로 제주·울산에 이어 최하위권이었다.

반면 서울과 경기, 인천은 각각 4만 3132건, 4만109건, 6139건으로 수도권 3년 사이에 40.8%(107건) 감소했다. 전남지역도 2009년 228건에서 2010년 169건, 2011년 165건으로 27.6%(63건) 줄어들었다.

광주·전남지역의 지식재산권이 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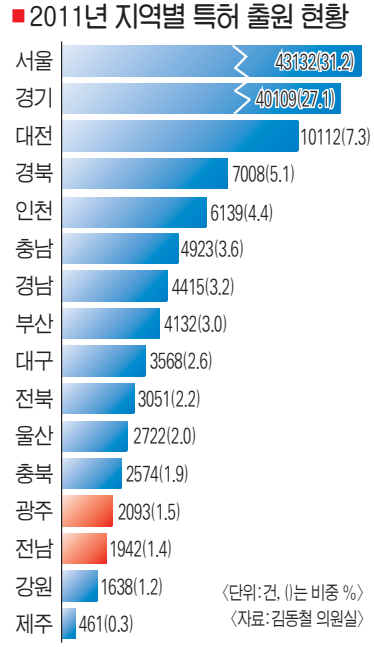


약한 것은 연구개발 인력과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식경제부 산하 4개 기관을 통해 집행한 연구개발(R&D)비는 광주 1802억원, 전남 1566억원으로 각각 전체의 2.9%, 1.6% 수준으로 지원이 미미했다.

이는 광주·전남에 연구개발비가 지원되지 않음으로써 특허 출원도 빈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지방의 경우 지자체와 중소기업에 지식재산 선담조직과 인력이 부족해 이종고를 겪고 있다.

김동철 의원은 "특허청은 전국에 총 31개의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운영



하고 있다"며 "하지만 평균 인력이 5.6명에 불과하고 전문인력도 턱없이 부족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목기자 jwpark@kwangju.co.kr

국세청 11명중 9명 영남·수도권 편중

국세청 국세장 11명중 광주 전남 출신이 단 한명도 없어 지역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영선(담양·함평·영광·장성)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세청 국, 실장 출신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11명의 국, 실장 중 전남 출신은 2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명 모두가 전북출신이며 광

주 전남 출신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고위공무원단인 국장과 실장 11명의 각 출신지를 살펴보면 기획조정관(전북 고창), 전산정보관리관(경기 고양), 감사관(서울), 국제조세관리관(경기 화성), 납세자보호관(전북 부안), 징세법무국장(경북 상주), 개인납세국장(경북 칠곡), 법인납세국장(대구), 조사국장(경북 의

성), 재산세국장(경북 상주), 소득지원국장(서울)로 수도권 4명, 영남 5명, 호남 2명이다.

이 가운데 호남 출신 2명은 기획조정관과 납세자보호관으로 각각 전북 고창과 부안 출신으로 광주 전남 출신은 없다.

박영선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통합을 강조하지만 실제 인사는 심각한 지역편중으로 이뤄졌다"며 고른 지역 안배를 주장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전남 무역협회 Light비전엑스포 상담회 광산업 수출상담 1300만달러 실적



광주 LED 조명 150억 어치 개도국 보급 광산업진흥회-광주시 등 6개 기관 MOU

한국광산업진흥회(회장 이재형)는 10일 롯데호텔에서 광주 호남에서 광주 시 등 6개 기관과 '빛과 희망 나눔 프로젝트' 상호협력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참여 기관은 광주시와 한국광산업진흥회, 원아시아클럽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광주 LED미니클러스터, 광주단지 기업주최의센터 등 6개 기관·단체다.

'빛과 희망 나눔 프로젝트'는 광주시가 2000년부터 육성된 광산업의 성과를 개발도상국에 전파하는 공공 프로젝트다. 또 선진국에 치중해 해외 마케팅 전략에서 벗어나 블루오션으로 간주되는 개발도상국에 진출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들 기관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LED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백재선)는 지난 9일 국제Light비전엑스포가 열리고 있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산업 관련 수출상담회(사진)를 열어 1300만 달러의 상담 실적을 올렸다고 10일 밝혔다.

무역협회는 이날 수출상담회에 터키·일본 등 4개국 21명의 광산업 바이어를 초청해 엑스포 참가업체 70개사와 131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백재선 본부장은 "지역 광산업 기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출상담회를 열었다"며 "신규 바이어 발굴 등 수출 실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목기자 jwpark@kwangju.co.kr



금호고속(사장 김성산)은 임직원과 가족 등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한천동 독립기념관에서 '2012 고객행복다짐대회'를 열고 있다. 이 행사는 금호고속 모든 임직원들이 한 데 모여 결속을 다지고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금호고속 제공)

중 진출 국내 물류기업 매출 늘고 수익성 악화

중국 시장에 진출한 국내 물류기업의 매출 규모는 커졌지만, 수익성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중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물류기업 116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작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평균 3%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7% 감소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임금인상 정책에 따라 2010년 이후 인건비가 연평균 20% 이상된데다 유가 상승으로 비용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대한상의는 분석했다.

이처럼 경영성과가 부진함에도 중국 진출 기업들의 만족도와 기대감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진출 성과에 대한 물음에 67.5%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향후 3년간 평균 매출액은 연 15.4%, 영업이익은 12.9% 각각 증가할 것이라며 '핑크빛' 전망을 내놓았다.

중국 진출의 예외적으로는 복잡한 통관 절차(31.6%)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면허 취득의 어려움(21.2%), 전국적 네트워크 확보 미흡(19.7%), 정보 부족(19.7%) 등의 순이었다. /연합스

3분기 제조업 실적 저조...4분기 악화

올해 3분기 제조업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적은 4분기에 더 악화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3분기 제조업 기업경기 실사지수(BIS)를 조사한 결과 3분기 실적이 84로 애초 전망치인 101을 크게 밑돌

았다.

지수가 100이면 직전 분기와 시황이 같은 것이고 100보다 크면 호전, 작으면 악화한 것이다.

반도체(68), 자동차(73) 등 조사 대상 업종 전체가 2분기보다 실적이 나쁜 것으로 평가됐다. /연합스

매출(85), 내수(85), 수출(86), 경상이익(81) 실적도 모두 부진했다.

시황 지수는 작년 3분기 91, 4분기 90, 올해 1분기 88, 2분기 95, 3분기 84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4분기 전망은 95로 3분기만에 기준치(100)보다 낮게 제시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21일 온라인으로 시행했으며 508개 기업이 응답했다. /연합스

9월 전세자금보증 8747억...전년비 2.9% 늘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9월 한 달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 지원한 전세자금보증 금액이 8747억원(2만6102건)이라고 10일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8503억원)보다 2.

9% 증가했지만 올해 8월(9154억원)보다는 4.4% 감소했다.

공사 관계자는 "국토연구원의 8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동향을 보면 전세시장 소비심리 지수가 7월보다 6.5포인트 올랐다. /연합스

코스피지수	1,948.22 (-30.82)
코스닥지수	533.86 (-6.57)
금리 (국고채 3년)	2.71% (-0.05)
원·달러 환율	1,114.60원 (+3.9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절반만 결제해도 여행가능

목돈없이 떠나는~ 내맘대로 여행. 2012상반기 베스트 히트상품

해외여행 1000만명 시대
목돈이 없어 여행을 망설이신다면
여기 후불제투어 여행적금을 적극 이용하세요.
가족단위, 산악회, 단체, 직장, 성지순례, 골프, 신혼
목돈없이 계획대로 여행할수 있습니다.

■ 후불제투어 특징

- ① 후불제여행은 매월 일정 금액을 6개월 납입후 여행을 다녀온 후 여행잔금을 매월 일정금액 나머지 금액만큼 납부하는 획기적인 후불제여행 시스템입니다.
- ② 하나투어 · 모두투어 원하는 여행상품을 마음대로!
- ③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1인1구좌에 한함)
- ④ 여행금액을 다 지불하고 가는 여행이 아니므로 최상의 고객만족을 실현시켜드립니다.
- ⑤ 만기시 100% 환급가능합니다.

책임감 있는 진행으로 인한 스트레스 NO!!

회원가입 월 회비 적립금 최대 360만원까지	월 회비 금액 40,000원 60,000원 120,000원	회비선택하신후 6개월 적립후 여행가능	상품 선택후 고객센터예약	적립금액+ 지원금액 목돈 없이 여행	여행후 잔금적립후 계약만료
--------------------------------	---	----------------------------	------------------	---------------------------	----------------------

신뢰의 1위기업 후불제여행사, 후불제 여행민의 신뢰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직접 경험 해보세요.

(주) 후불제투어 www.hubuljetour.co.kr
회원가입 및 상담문의 1577-5978

지사/영업직모집
■ 퇴직자, 주부사원, 알바, 재택근무
■ 지사모집 : 소자본 무경력, 여행사 운영가능합니다. (법인설립비용없음)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민청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매가 벗겨진 묘, 동침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위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언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할 해본 사람들은 분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빈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정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이 편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민청사

무등산 문민청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민청사 남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